

경북도, 내년 국비건의 예산 4조8561억 확보

올해 정부예산안보다 17% 증액
SOC·R&D 분야 큰 폭으로 증가
“미반영 사업 반영하도록 총력”

경북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심의를 앞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지역 국비건의사업으로 4조8561억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경북도 2021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2020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4조1496억원 보다 17%(7065억원) 증가한 4조8561억원으로 SOC 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을 혁신 시킬 수 있는 R&D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평소 지역의 미래성장 산업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고민과 의지를 반영시킨 결과로 평가된다.

주요 반영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5050억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4012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2585억원 ▲울릉공항 건설 800억원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145억원 ▲백신



경북도청 전경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64억원 ▲포항 도구해변 연안정비 113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74억원 ▲재난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14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경북산업단지 대개조사업 400억원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167억원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 13억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 5억원 등 32개 사업에 1131억원을 확보했으며, 특히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R&D분야의 증가가 눈에 띈다.

주요관심사업인 동해선 전철화사업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될 계획이며, 경북도의 미래 성장을 위한 경북도 산업단지 대개조(총사업비 9927억원),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에타통과(총

사업비 1354억원), 경상북도 산업용 웹프규제자유특구 지정(총사업비 450억원),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총사업비 360억원) 등은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경북재도약의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안사업이 추가 또는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방문 활동을 강화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국가투자에 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종잣돈인 만큼 국회 의결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안에 담지 못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사업 등도 지역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부산시 '동백전' 가맹점 신청 접수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접수에 나섰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동백전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만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현재 동백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동백전은 일부 제한업종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가맹점 등록절차 없이 일반카드처럼 부산시내카드 결제가 가능한 90% 가맹점(20만개 중 18만개)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30일 출시된 이래 8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85만명, 사용금액만 9200억원에 달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경북도교육청 승진 대상 사무관 인성평가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0일간 올해의 사무관 심사 승진 대상자 89명을 대상으로 인성평가를 한다.

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평가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성평가단은 평가대상자와 최근 6개월 이상 7년 이내 근무한 일반직·교육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되며 1780명이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품성과 태도, 인간관계, 리더십 등 10개다. 인성평가 결과는 사무관 심사승진평가의 10%를 차지한다.

승진대상자는 설문평가 점수와 준법성 준수 여부 측정을 위한 세금체납,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을 반영해 7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후보자 명부(60%), 집단토론(30%) 점수와 관계없이 승진에서 제외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 2개월 연속 상승

8월 물가 광주 0.6%·전남 1.1% ↑
긴 장마·코로나에 신선채소 급등

지난달 광주와 전남지역 소비자 물가가 1% 안팎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96(2015년=100)으로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각 0.6% 올랐다.

전남은 105.96으로 전달과 비교해 0.8%,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상승했다.

1~3월 1%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역 물가는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면서 4월 0.1%와 0.2%, 5월 -0.2%와 -0.3%, 6월 0% 등 떨어지거나 보합을 유지하다가 7월 0.2%와 0.5%로 반등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 3월(1.1%)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채소물가를 파악하는 생활물가지수는 광주가 0.1%, 전남은 1.1% 올랐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17.0%(광주)와 17.4%(전남) 등 큰 폭 상승했다.

코로나와 길어진 장마 등으로 공급이 달린 배추(43.8%), 호박(109.9%), 상추(74.2%), 시금치(61.6%), 토마토(30.5%) 등 신선 채소류가 25~30% 급등했다.

품목 성질별로 배추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은 각 10.3%와 12.2% 올랐다. 공업제품은 수입 자동차 증가에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제품 가격 하락 등으로 각 0.3%와 0.6% 하락했다.

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비, 구내식당 식사비 상승 등으로 각 0.1%와 0.3%로 소폭 상승했다.



전남 청년창업자들

청년아이디어로 세계화 '앞장'

전남 농수특산물 활용 제품 개발
지역기업 매출 신장·경쟁력 확보

전남지역의 풍부한 농수특산물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향토기업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청년창업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향토자원 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날개를 달았다.

2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나주 피어크리에이티브그룹 김창용(32) 대표는 미디어커머스를 활용, 유튜브와 SNS를 통해 향토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해 지역 기업들의 매출 신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광양 매실꽃달아 김은영(35) 대표는

/전남=양수영 기자

매실과 천연발효종을 이용한 요거트 등 매실 가공식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개발해 향토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곡성 람이 이지혜(32) 대표는 곡성 특산물인 토란을 이용한 토란빵 '람이'를 제조해 지역 제과 시장에 신선함을 가져왔다는 평을 받았다.

곡성 ㈜트루미랜드 김진우(27) 대표는 차세대 식량으로 각광받는 곤충을 이용해 반려견 식품을 출시,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 연장을 꿈꾸고 있다.

무안 팜스뱅크 이세운(27) 대표는 황토 고구마를 활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신선한 먹거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에너지밸리 ICT·보안 컨퍼런스 온라인 개최

한전KDN, 오는 16일 진행

한전KDN은 오는 9월 16일 ICT&보안 분야별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빛가람에너지밸리 ICT&보안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이번 컨퍼런

스는 지난 2016년 개최 이후 매년 참여기업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글로벌기업 및 지역중소기업 등 37개 기업이 참여하고 약 2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명실상부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적인 ICT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김천시, 이달의 기업에 '테스크' 선정

매연저감장치로 인도·베트남 공략

경북 김천시는 '9월 이달의 기업'으로 ㈜테스크(대표 황정상)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테스크는 자동차부품·매연저감장치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2006년 정도정밀에서 분사 설립돼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제품 100만개 당 불량품이 10개 미만으로 싱글PPM 품질인증을 받았다.

ISO14001, IATF16949 국제규격 품질인증을 비롯해 국내 특허, 실용신안 등 40여 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김충섭 김천시장(오른쪽)이 황정사 테스크 대표에게 이달의 기업 선정패를 전달하고 있다.

있다.

인도,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에 나섰다. /김천(경북)=김홍기 기자 gj2136@

안동시 작년 살림규모 2578억 ↑

경북 안동시의 지난해 살림 규모는 총 1조69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8억 원 증가했다.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575억 원보다 6340억 원 많다.

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9 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동시 자체 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05억 원보다 563억 원 많은 1668억 원이다. 이전재원은 유사 지자체 평균액 6166억 원보다 4289억 원 많은 1조455억 원이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자체 평균이 3만5000원인데 비해 안동시는 0원이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